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다원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다문화 악곡 분석 연구

-초등학교 3~6학년 음악 교과서를 중심으로-

A Analysis of Multicultural Music Pieces

in view of Pluralism

-Based on the Elementary School Grade 3~6-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박 나 은

2015년 8월

다원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다문화 악곡 분석 연구
-초등학교 3~6학년 음악 교과서를 중심으로-

A Analysis of Multicultural Music Pieces
in view of Pluralism
-Based on the Elementary School Grade 3~6-

지도교수 조 영 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박 나 은

2015년 5월

박 나 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제한점	4
4. 선행연구	4
II. 이론적 배경	6
1. 다원주의 개념	6
2. 다원주의와 다문화교육	7
3.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9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2
1. 분석 범위와 분석 방법	12
가. 분석 대상	12
나. 분석 범위	13
다. 분석 기준	13
2. 초등 음악 교과서 분석	15
가. 다문화 악곡의 비중	15
나. 다문화 악곡의 분포	19
다. 내용체계에 따른 분석	35

IV. 결론 및 제언	42
1. 분석 결과	42
2. 제언	45
참고 문헌	47
ABSTRACT	50
IV. 부록	53

표 목 차

<표 1> 국가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음악교육	2
<표 2> 다문화 악곡의 분류 기준	3
<표 3>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	12
<표 4>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출판사별 악곡 비율	16
<표 5>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학년별 악곡 비율	17
<표 6>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의 지역별 분포 ...	19
<표 7>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의 국가	20
<표 8>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의 대륙별 분포	21
<표 9>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 음악의 국가	22
<표 10> 출판사 별 지역별 민족음악 수록 국가	25
<표 11> 민족음악의 지역·국가별 분포 (3~4학년)	27
<표 12> 민족음악의 지역·국가별 분포 (5~6학년)	28
<표 13> 종교음악의 종교별 분포(3~6학년)	31
<표 14> 대중음악의 장르별 분포(3~6학년)	34
<표 15>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35
<표 16> 민족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분류	37
<표 17> 종교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분류	39
<표 18> 대중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분류	41

그림 목 차

<그림 1>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출판사별 악곡 비율	18
<그림 2>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악곡 비율	18
<그림 3>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의 대륙별 분포 비교	22
<그림 4> 종교음악의 종교별 분포(3~6학년)	32
<그림 5> 대중음악의 장르별 분포(3~6학년)	35
<그림 6> 민족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비율	36
<그림 7> 종교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비율	38
<그림 8> 대중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비율	40

국 문 초 록

다원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다문화 악곡 분석 연구

-초등학교 3~6학년 음악 교과서를 중심으로-

박 나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조 영 배

오늘날 우리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주었고, 민족과 국가 간의 지식·문화의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인종과 문화의 국경이 희미해졌다. 한국 사회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이민자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민족국가가 되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다원주의’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문화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이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기에 타당한지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보완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음악 교과서의 전체 악곡에서 다문화 악곡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나라 악곡과 서양 예술악곡의 비중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다문화 악곡을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김은경(2014)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다문화 악곡의 학습 내용을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따라 표현, 감상, 생활화로 분류하고 학습활동에 적용 방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악곡에서 우리나라 악곡은 64.7%, 서양 예술악곡은 20.5%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악곡의 비율은 14.8%를 차지하고 있다. 학년별, 출판사 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점은 다문화 악곡이 최대 20.0%로 20%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족음악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국가의 악곡이 수록되었고, 유럽과 아시아 악곡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출신지가 불분명한 외국곡의 비중이 14.1%에서 6.3%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북유럽의 곡은 수록되고 있지 않으며, 유럽 전체 악곡의 37.0%가 독일의 음악이라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종교음악은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종교 음악의 분포와 비교했을 때, 3~4학년에서는 수록되지 않고 5~6학년에만 수록되었던 종교음악이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는 3~4학년까지 확대되었고, 유교가 36.4%, 무속종교가 27.3%, 불교가 22.7%, 기독교가 13.6%를 차지하였고,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제시되지 않았다.

넷째, 대중음악은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장르별 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3~4학년에는 수록되지 않던 대중음악이 범위가 3~6학년으로 확대되었고, 팝송, 캐럴, 뮤지컬, 영화음악에 한정적이던 장르가 대중가요, 랩, 팝송, 캐럴, 뮤지컬, TV음악, 영화음악, 생활음악으로 다양해졌다. 영화음악은 56.1%, 뮤지컬과 팝송은 10.5%, 대중가요는 8.8%, TV음악이 7.0%, 캐럴이 3.5%, 랩과 생활음악이 1.8%를 차지하였다.

다섯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따라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민족 음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악곡은 89.0%가 표현 영역에, 10.5%가 감상 영역의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생활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0.5%에 그쳤다. 종교음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악곡의 학습 내용은 81.9%가 감상

영역에, 18.1%가 생활화 영역에 해당하고, 표현 영역은 단 한곡도 없다. 대중음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악곡의 학습 내용은 67.1%가 표현 영역에, 18.8%가 감상 영역에, 14.1%가 생활화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변해가는 시대에 맞는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이 가능하도록 다문화 악곡을 보다 폭넓게 선정하여 특정 대륙과 국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다문화 악곡을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요어 :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음악교육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주었고, 민족과 국가 간의 지식·문화의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인종과 문화의 국경이 희미해졌다. 한국 사회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이민자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민족(多民族) 국가가 되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대현은 절대주의였던 19세기가 20세기에 해체되고 21세기, 즉 ‘다원주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고 하였다. (정대현, 2013, p. 66)

오늘날 다원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국제화 또는 세계화와 더불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재하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혼재를 공존으로 인정하는 다원주의 또한 널리 자리 잡았다. (김진엽, 2012, p. 23)

이러한 사회 흐름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21세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자주인(self-directed person), 창의인(creative person), 문화인(cultivated person), 그리고 세계인(global-minded person)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음악은 국가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로서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고 그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아래의 <표 1>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음악 교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대의 음악,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소개하여야 하는 책임감을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시대, 양식, 문화권의 음악’을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주의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활동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음악의 생활화를 중시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세계 음악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표 1> 국가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음악교육

국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
⌆	⌆	⌆	⌆
감상과 표현의 개별성 강조	사회적 속성을 지닌 창의적 사고	음악적 전통의 계승 및 발전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경험
학교 음악교육의 성격			

음악 교과서에 아프리카의 음악이 소개되었고, ‘외국곡’이라고 기재하던 것이 나라의 국적을 기술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지 언어로 가사를 불러보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음악은 “노래를 불러보는 활동”에서 끝이 나거나 감상 영역의 음악은 대부분의 음악사에서 “주류”라 불리는 서구 음악이라는 문제가 있다.

2006년 이후, 음악 교과서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거나 악곡을 서양 음악사의 시대 구분으로 분석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연구는 검정 교과서의 등장에 따라 그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교하여 초등학교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다문화 악곡이 음악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포함하고 있는지, 다문화 악곡의 비중과 그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앞서, 다문화 악곡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 악곡의 정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대창, 조효임은(2004) 다문화 악곡은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국의 음악 및 서양의 예술음악 이외의 음악을 말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뿐 아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음악 수업에서 자국의 음악 및 서양 예술 음악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외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pp. 265~266)

박미경(2002)은 세계의 여러 전통음악은 서양의 예술음악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세계음악의 정체성 찾기는 ‘서양음악이 세계 음악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혜리(2010)는 지금까지의 음악교육이 서양 음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가치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므로 다문화 악곡에 서양 음악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p. 4)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악곡의 범위는 서양의 예술 음악을 제외하며,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여러 문헌과 선행 연구를 통해 다원주의의 개념과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 다문화 음악교육의 개념 및 그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 참고곡의 다문화 악곡을 계수하여 그 비중을 우리나라 음악과 서양 예술음악의 비중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셋째, 각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 참고곡의 다문화 악곡을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다문화 악곡 반영 비율과 비교 분석 하였다. 이때, 2007 개정교육과정의 다문화 악곡 반영 비율은 김은경(2014)의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악곡 분석’에서 발췌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2> 다문화 악곡의 분류 기준

분석기준	분석방법	범주
민족음악	지역별 분류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종교음악	종교별 분류	기독교, 유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무속종교
대중음악	장르별 분류	대중가요, 팝, 샹송, 재즈, 캐롤, 뮤지컬, 영화음악, TV음악, 생활음악

넷째, 각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 관련곡에 따른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의

학습 내용을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따라 표현, 감상, 생활화로 분류하고 다문화 음악이 반영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의 분포 결과를 김은경(2014)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소장된 국회도서관 전자목록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를 다원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김은경(2014)의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악곡 분석: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 비교’가 유일하였다. 따라서 비교 대상이 김은경(2014)의 논문 하나에서 그친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4. 선행연구

다원주의의 ‘문화의 다양성 인정’이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으로 반영되는 만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지선(2003)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주의 반영 분석’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다문화주의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민속음악은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민요가 가장 많고, 종교음악은 기독교 음악이 대부분이었으며 다문화적 요소 반영 비율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대창, 조효임(2004)은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접근’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접근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 교과서에 반영된 다문화적 소재의 비중과 분포 및 수업 방안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직접적인 수업 주제로 설정한 단원은 2학년과 6학년에서 각 1개씩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외국곡’이라고 표시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라는 안내가 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민속음악이 악곡 수나 활용 빈도 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다문화적

악곡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지수(2012)의 ‘음악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에서는 음악을 활용한 세계 다문화 교육의 실재를 살펴보고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07 개정 교과서의 다문화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다문화적 악곡을 참고곡이 아닌 단원의 제재곡으로 구성하여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다문화 악곡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원어로 가사를 표기하지 않은 점이나 사진 자료나 삽화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하였다.

김은경(2014)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악곡 분석’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15.1%였던 다문화 악곡 비중이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19.7%로 늘어나고,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단원을 설정하여 제재곡을 제시할 뿐 아니라 제7차 교과서에서 외국곡이라고만 표기된 미확인 지역의 민요의 비중이 75%에서 개정 후 14%로 줄어든 것을 민족음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민요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의 음악이 골고루 수록되어 있는 반면, 유럽과 아메리카 민요는 북아메리카 지역 및 서유럽 지역의 제재곡이 편중되어 실린 경향이 있어 지역적 다양성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단순히 노래를 익히는 활동에 그치는 것에서 벗어나 음악적 이해 요소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학습활동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6학년 교과서에 제한되었던 대중음악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 6학년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고 있으나 중교음악의 경우 다양한 음악이 수록되어야 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2006년도부터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교육’ 활동이 증가한 이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다문화 교육’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음악 교과에서도 세계 음악이 하나의 독립된 단원으로 소개되고, ‘외국곡’의 미확인 지역 음악이 줄어들어 등 다문화 악곡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은 다문화 악곡의 지역별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 사진자료나 삽화 등의 설명 자료의 부족, 다문화 악곡을 학습하는 것이 단순히 노래를 익히는 활동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악곡이 교과서에 어떻게 수록되어 학생들에게 학습되는지 다원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원주의 개념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물질문명과 과학이 급속하게 발달하였고, 20세기 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어난 당시의 사회 변화와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였다. 지식의 절대성과 객관성, 절대적인 이념을 부정하며 정치적으로는 탈이념과 함께 개성, 자율성, 다양성은 물론 대중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또한 사회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서인도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하였고,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이주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초기 다문화 정책으로 실시된 동화이론에 대한 회의와 미국의 완전 동화이론의 반격으로 문화적 다원주의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다원주의의 개념에 대해 여러 사전과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세계미술용어사전(1999)에는 특정한 하나의 것만을 주류로 간주하려는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관점. 즉 어떤 단 하나의 접근 방식이 대폭적인 지지나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고 다수의 양식이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기술하였다.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2010)에서 다원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저마다 갖고 있는 가치관·이념 또는 추구하는 목표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원주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 pluralism가 1818년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사전에 처음 등재되었을 때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1)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를 겹쳐서 말음 2)다원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나 상태 3)궁극적 실체가 여럿이라는 이론 4)다양한 민족·인종·종교 집단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회의 상태. 김진엽(2012)은 이는 형이상학적 다원주의를 비롯하여 인식론적 다원주의, 미학적 다원주의, 윤리적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주제나 대상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여럿일 수 있으며, 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올바른 삶의 양식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고, 그 배후

에는 해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문성원(1998)은 특정 문화는 모든 인간에게 무언가 ‘중요한 어떤 것’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가 지닌 가치란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원들의 삶을 지탱시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중요하고 고유한 가치’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p. 184)

본 연구에서 다원주의는 현재 사회가 메리엄-웹스터(Merriam- Webster) 사전의 4)다양한 민족·인종·종교 집단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회의 상태로 보고, 특정한 하나의 것만을 주류로 간주하려는 사고방식에 대응하여 다수의 양식이 공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원주의 관점은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의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인간 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여성, 흑인, 비서구(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비주류 문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으로 소수 문화가 특정문화에 동화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소수집단의 고유문화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한희정, 2010, p. 5)

2. 다원주의와 다문화 교육

한국 사회에서도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해외 유학생들의 국내 거주 등으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08년 11월 26일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국제결혼이 매년 2만건 이상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2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가 넘고, 한국에 정착한 국제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전체 어린이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2014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1,569,47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204,204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회 흐름에 따라 2006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는 “한국이 급속히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이해 하에” 부서 행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도 2006년도부터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교

육'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을 독려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다문화 교육'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양영자, 2007, pp. 198~199)

Bennett(2007)는 다문화 교육을 민주주의의 신념과 가치에 기초를 두고, 상호 의존성이 높은 세계,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안에서 문화다원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Bennett는 다문화 교육이 취하는 여섯 가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지식과 더불어 자신의 것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민족 집단의 유산과 공헌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인간이 갖는 생각과 관점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를 지각하게 해 주는 것이다.

셋째, 언어, 표시, 몸짓과 같이 의도된 의사소통 방식, 신체언어와 같이 무의식적인 표시, 자신의 것과는 다른 문화에서 나타나는 관례 등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및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다섯째, 세계의 변화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 역동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섯째, 지구의 미래와 인류의 안락한 생활에 위협이 되는 주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만한 지식과 태도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다. (공수현, 2013, p. 9에서 재인용)

뱅크스(2008)는 다문화주의 교육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다문화주의 교육이 소수 민족, 소수 민족의 문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그룹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교육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음악과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다양한 나라의 민요와 동요, 문화가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서구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음악가와 이들이 발전시킨 음악 양식을 중심으로 되어 온 서양음악사는 서구 사회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음악활동과

개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음악연구에서 주관성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학풍이 형성되면서 음악학 분야 뿐 아니라 음악교육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음악교육의 의미를 탈 식민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게 된다. 테일러(Timothy Taylor)는 다문화 음악교육이 비서구의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서구 중심의 왜곡된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씨거와 스테판스(Robert W. Stephens)는 음악적 가치판단에 잔존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탈 근대, 탈 서구, 탈 식민적 사고를 다문화 교육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테판스는 근대 미국음악문화의 뿌리인 아프리카 음악전통을 배제하고 유럽의 조성음악만을 다루는 제도권 음악교육과 학문전통이 음악적 감수성과 가치판단에서 인종차별주의나 제국주의적 관점을 재생산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블랙킹(John Blacking)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현장연구를 하고 그 결과로 음악은 각기 다른 문화의 기준, 목적, 가치에 의해 구조와 의미를 만들어 내는 “인간적으로 조직된 소리”라고 주장하면서, 음악은 문화적인 산물이므로 각자의 문화마다 미적·사회적 가치가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음악인류학자 볼먼(Philip Bohlman)과 음악학자 버그런(Katherine Bergeron)은 제도권 음악교육과 음악연구가 양식사와 진보담론을 수용하는 특정시대의 역사관을 토대로 함을 지적하면서 서구 레퍼토리 중심의 정전(클래식, canon)에만 초점을 맞춰온 음악교육과 학문연구의 제도화를 문제 삼는다. (이한샘, 2013, pp. 14~15)

따라서 문화 다원주의는 서구 문화의 압도적 헤게모니에 대한 치료제로서 큰 의미가 있다. (윤평중, 2002, p. 155)

3.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무어(Marvenlence C, Moore), 캠벨(Patricia S. Cambell), 엘리엇(David J. Elliot), 함회주, 권덕원의 견해를 소개하였다.

무어(M. C. Moore)는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이 미국의 다양한 문화적 집단의 음악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음악에 대해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교수 접근이라고

하였다. 캠프(P.S.Cambell)은 인종, 혹은 민족의 기원 차이, 지위, 성, 종교 생활 방식 소외계층으로 구별되는 집단의 음악에 대한 연구라고 주장했다. 함희주(2003)는 다양한 민족, 인종, 사회계층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음악들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를 반영한 다양한 종류의 음악은 물론 여러 시대의 양식과 형식들의 음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엘리엇(David J.Elliott)은 ‘이 세계에는 다양한 음악이 존재하며, 각각의 음악은 각각의 전통과 문화적 맥락 위에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있다고 하였다. 권덕원(2000)은 다문화주의 교육이론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인종과 인종 사이, 민족간, 인간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추어내는 교육론의 한 분야이며,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음악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 모든 나라의 음악, 모든 나라의 음악교육에 관련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p. 61)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인종, 민족, 종교, 사회적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음악적 특성과 음악 문화 양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한다.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이 필요성을 여러 학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자신의 민족음악과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제임스 뱅크스(James Banks)는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인 측면에서 자기 정체성(self-identification)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교육학자 엘리엇(David Elliott)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문화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한샘, 2013, p.16) 박미경(2002)은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접하게 되면 우리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음악의 독창성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그와는 구별되는 우리 민족의 음악적 특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리 음악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 (fung, C.V.Rationals for teaching World Musics. Music Educators Journal, 1995, p. 37)

둘째,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의 음악,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리타 클링거(R.Klinger)는 “학생들은 종족 음악을 통하여 그 민족의 가치, 의식, 관습, 신화, 사회, 규준 등을 이해하고 되고, 그들의 음악, 미술, 문학, 역사 등을 통하여 그 민족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윌 슈미드(W.Schimid)는 “다문화적 음악

은 학생들에게 그 음악 문화가 가진 가치를 전해주는 바, 이러한 가치는 다른 과목의 학습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각 민족의 음악은 각 민족들이 오랜 역사를 두고 발전시켜온 그들의 사회, 문화의 한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이며, 우리들은 그 종족 음악들의 학습을 통하여 그들 삶의 한 중요한 단면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문화적 음악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한다고도 한다. (권덕원, 1999. p. 54)

셋째,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음악적 창의성을 향상시켜준다. 음악에 있어서 창의적 사고는 작곡 및 즉흥 연주 등의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창의적인 음악적 사고는 보다 다양한 양식과 장르의 음악을 탄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는 다양한 시대, 문화, 장르 등의 음악을 경험하게 하고 사고의 폭을 넓힘으로써 기를 수 있는 것이다. 한현희(2004)는 학교의 음악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족음악을 다루어 주는 것은 그들에게 음악적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음악의 개념을 보다 확대시켜서 음악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앤더슨(William M. anderson)은 세계음악학습이 다양한 유형의 음악을 지적으로 감상하고 연주할 수 있는 다 음악성(Poly Musicality)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한지선, 2002) 권덕원(1999)은 이러한 주장의 한 예시로 리듬을 배울 때, 서양악곡으로만 배우던 한정된 리듬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다양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리듬을 경험하게 해주면 리듬의 개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p. 32)

다섯째,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문화에 대한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식하고 존중하게 해준다. 브루노 네틀과 그 외 저자들은 “각 사회는 각 문화에 어울리는 각각의 음악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각 민족이 스스로 자기들의 음악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즉, 각 민족음악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그 음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서로 같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한현희, 2004, p.11)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소수 문화에 대한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식하고 각 문화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21세기의 자주인(self-directed person), 창의인(creative person), 문화인(cultivated person), 그리고 세계인(global-minded person)의 자질을 갖출 수 있으며,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분석 범위와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검정교과서 8종과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검정교과서 6종을 분석 대상 범위로 정하였다. 분석 교과서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교과서의 명칭을 교학사는 '교학', 동아출판(주)는 '동아', (주)미래엔은 '미래', (주)비상교육은 '비상', 세광음악출판사는 '세광', (주)음악과 생활은 '음악', (주)지학사는 '지학', (주)천재문화는 '천재'로 하였다.

<표 3>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

순번	학년	출판사명	저자명
1	3~4	교학사	황병훈 외
2		동아출판(주)	석문주 외
3		(주)미래엔	장기범 외
4		(주)비상교육	주대창 외
5		세광음악출판사	주천봉 외
6		(주)음악과 생활	양종모 외
7		(주)지학사	정길선 외
8		(주)천재문화	오세균 외
9	5~6	교학사	노승중 외
10		동아출판(주)	석문주 외
11		(주)미래엔	장기범 외
12		(주)비상교육	주대창 외
13		(주)지학사	정길선 외
14		(주)천재교육	윤명원 외

나. 분석 범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은 제재곡, 참고곡을 모두 포함하였다. 제재곡은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하나의 완전한 곡을 뜻하며, ‘제재’의 구성은 제재곡만 제시되는 경우, 제재곡과 감상곡이 제시되는 경우, 감상곡만 제시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재로 제시된 모든 곡을 제재곡이라 하였다. 참고곡은 ‘즐거운 노래’ 및 ‘즐거운 노래와 합주’ 등 교과서 뒷부분에 수록되어 필수 악곡 외에 추가적으로 수록된 악곡을 말한다. 전체 악곡 수는 제재곡과 참고곡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학습목표 도달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제재곡과 관련하여 제시된 악곡도 포함하되 악보 전체, 감상곡의 경우 악보의 일부가 게재되어야 한다. 즉, 노래 제목만 제시한 곡이나 노래 가사만 제시한 곡은 제외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하여 수업에 임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도서에는 제시되었지만 교과서에 없는 제재곡은 제외하였다.

이상의 범위는 김은경(2014)의 선행연구에 따른 것이며,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분석 내용과 비교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가부키와 중국의 경극도 악곡에 포함하여 계수하였다. 이는 같은 차지에서 제시되는 판소리, 창극, 오페라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악곡을 제시하여 소개하고 있으나 가부키와 경극은 특정 악곡의 제시 없이 종합 예술 자체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곡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악곡에 준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교과서와 지도서가 3~4학년, 5~6학년의 학년군으로 편찬되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기초는 3, 5학년, 심화는 4, 6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3, 4, 5, 6학년으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다. 분석 기준

첫째, 2009 개정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을 계수하여 전체 악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우리나라 음악과 서양 예술음악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였다. 통계 방법은 전체 악곡 수 대비 해당 범주의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내

었는데 이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또한, '즐거운 노래'의 악곡은 교과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수록 되었으므로 3~4학년군의 '즐거운 노래'악곡은 4학년에, 5~6학년군의 '즐거운 노래'악곡은 6학년에 포함하여 계수하였다.

둘째,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의 관점에서 다문화 악곡을 분류하고 각 분석기준의 지역별, 종교별, 장르별 분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민족음악은 우리나라 민요를 제외한 세계 민요 및 세계동요로 제한하였으며, 지역별로 분석하여 얼마나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의 음악으로 다문화 악곡이 수록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지역은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의 5개 대륙 및 세부적인 국가별로 분류한다. 종교음악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무속종교로 분류하여 교과서에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독교 음악에는 기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레고리안 성가, 오라토리오, 교향곡, 미사곡, 찬송가, 흑인영가 등이 포함된다. 불교 음악에는 범패와 불교적 성격을 띤 가곡, 민요가 포함된다. 이슬람 음악에는 코란 낭송, 아잔(하루의 정해진 기도시간을 알리기 위해 이슬람 사원에서부터 전 지역으로 퍼지는 무반주 노래) 등이 포함된다. 힌두 음악에는 종교적인 힌두 음악, 유교 음악에는 문묘제례악과 종묘제례악, 무속음악에는 굿 음악이 포함된다. 대중음악은 대중가요, 랩, 팝송, 재즈, 캐롤, 뮤지컬 음악, 영화음악, TV 음악, 생활음악으로 구분하였다. 대중가요는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민중가요 등이 포함되며 팝은 외국의 대중가요, TV음악은 드라마 삽입곡과 광고음악, 생활음악은 게임음악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분류의 범주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김은경(2014)의 연구에 의한 것이다.

셋째,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으로 분류한 다문화 악곡이 어떠한 내용 체계에 속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목표, 주요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따른 내용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2. 초등 음악 교과서 분석

가. 다문화 악곡의 비중

다문화 악곡의 비중은 교과서 전체 제재곡에서 다문화 악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전체 악곡 수는 제재곡과 참고곡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지도서에는 제시되었지만 교과서에 없는 제재곡은 제외하였다. 또한 제재곡과 관련하여 참고를 위해 제시된 악곡 중에서 노래 제목만 제시한 곡이나 노래 가사만 제시한 곡도 제외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14종의 초등 음악 교과서의 전체 악곡의 수는 3학년은 325곡, 4학년은 373곡, 5학년은 285곡, 6학년은 313곡이다. 이 중에서 민요, 동요, 감상곡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악곡은 3학년 215곡으로 66.1%, 4학년 245곡으로 65.7%, 5학년 184곡으로 64.6%, 6학년 194곡으로 70.0%를 차지하고 있다. 학년과 출판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64%~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절반 이상의 곡이 우리나라 악곡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악곡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양 예술 악곡이다. 3학년은 63곡으로 19.4%, 4학년은 68곡으로 18.2%, 5학년은 64곡으로 22.5%, 6학년은 71곡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악곡은 3학년은 47곡으로 14.5%, 4학년은 60곡으로 16.1%, 5학년은 37곡으로 12.9%, 6학년은 48곡으로 15.3%를 차지하고 있다. 서양 예술 악곡과 다문화 악곡의 비중이 3학년과 4학년은 2~5%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5학년과 6학년의 경우 7~1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년 별 다문화 악곡의 비중은 출판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4학년이 가장 많고 6학년, 3학년, 5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출판사 별로 3~6학년의 다문화 악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학 14.2%, 동아 13.6%, 미래 18.9%, 비상 14.1%, 세광 15.7%, 음악 11.1%, 지학 14.5%, 천재 14.6%이다. 다문화 악곡의 비중이 가장 많은 출판사는 18.9%인 미래이며 비중이 가장 적은 출판사는 11.1%인 음악이다.

3~4학년은 8종, 5~6학년은 6종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선택

하는 검정교과서에 따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다문화 악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3학년 천재의 경우, 교과서에 수록된 30곡 중에 출신지가 불분명하여 외국곡이라고 표시된 2곡이 전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문화 악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출판사 별로 반영된 다문화 악곡의 차이를 가장 많은 경우와 가장 적은 경우로 살펴보면 3학년은 미래가 18.6%, 천재가 6.7%로 11.9%의 차이가, 4학년은 천재가 20.0%, 동아가 9.1%로 10.9%의 차이가, 5학년은 동아가 15.9%, 비상이 9.8%로 6.1의 차이가, 6학년은 지학이 19.1%, 교학이 14.0%로 5.1%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출판사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4학년의 천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악곡과 서양 예술 악곡을 합친 비율이 80%이상이라는 것이다. 다문화 악곡의 비중은 2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주대창, 조효임(2004)은 위와 같이 음악교육에서 자국의 음악과 서양 예술 음악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는 것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히면서 그 까닭은 자국의 음악은 그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소통 가능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서양 예술음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서양 악곡의 교육적인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이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 (p. 265)

<표 4>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출판사별 악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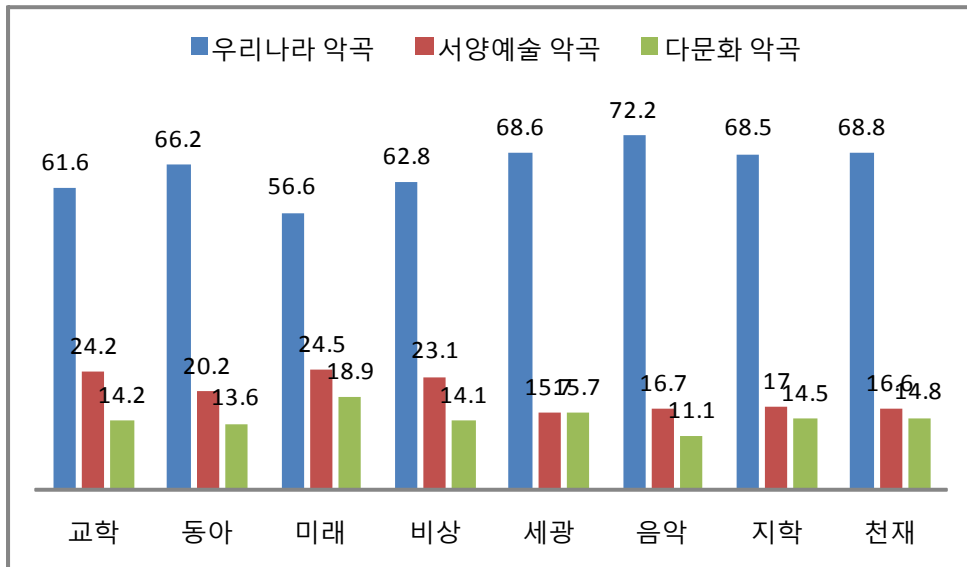
학년	구분	전체 악곡수	우리나라 악곡	서양 예술악곡	다문화 악곡
	출판사				
3~6	교학	190(100%)	117(61.6%)	46(24.2%)	27(14.2%)
	동아	228(100%)	151(66.2%)	46(20.2%)	31(13.6%)
	미래	196(100%)	111(56.6%)	48(24.5%)	37(18.9%)
	비상	199(100%)	125(62.8%)	46(23.1%)	28(14.1%)
	세광	89(100%)	61(68.6%)	14(15.7%)	14(15.7%)
	음악	72(100%)	52(72.2%)	12(16.7%)	8(11.1%)
	지학	165(100%)	113(68.5%)	28(17.0%)	24(14.5%)
	천재	157(100%)	108(68.8%)	26(16.6%)	23(14.6%)
소계		1296(100%)	838(64.7%)	266(20.5%)	192(14.8%)

<표 5>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학년별 악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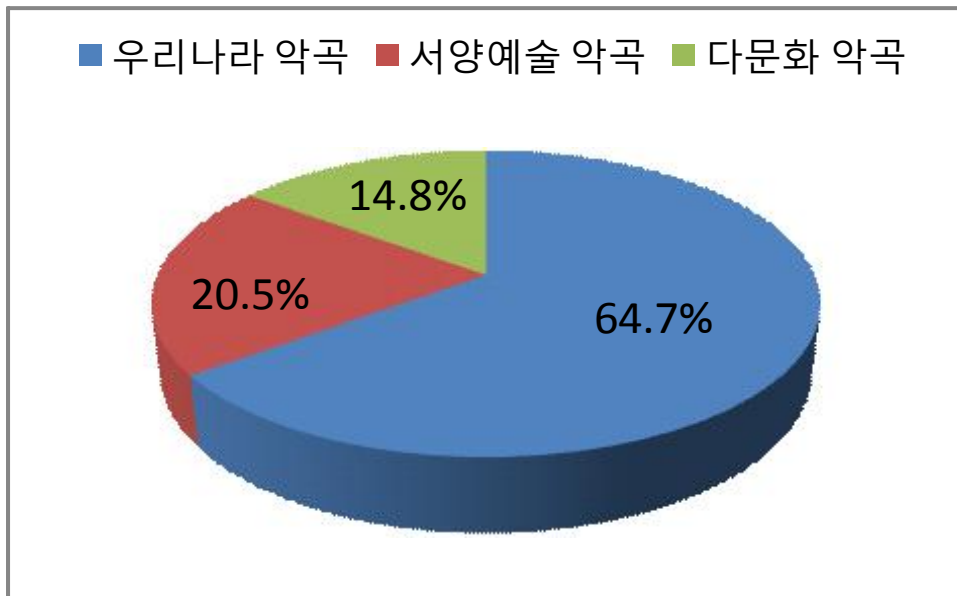
구분		전체 악곡수	우리나라 악곡	서양 예술악곡	다문화 악곡
학년	출판사				
3학년	교학	41(100%)	24(58.6%)	11(26.8%)	6(1)(14.6%)
	동아	54(100%)	32(59.3%)	13(24.1%)	9(16.6%)
	미래	43(100%)	27(62.8%)	8(18.6%)	8(2)(18.6%)
	비상	45(100%)	27(60.0%)	12(26.7%)	6(1)(13.3%)
	세광	40(100%)	26(65.0%)	7(17.5%)	7(17.5%)
	음악	31(100%)	24(77.4%)	3(9.7%)	4(12.9%)
	지학	41(100%)	30(73.2%)	6(14.6%)	5(2)(12.2%)
	천재	30(100%)	25(83.3%)	3(10.0%)	2(2)(6.7%)
	소계	325(100%)	215(66.1%)	63(19.4%)	47(14.5%)
4학년	교학	44(100%)	32(72.7%)	5(11.4%)	7(1)(15.9%)
	동아	66(100%)	50(75.7%)	10(15.2%)	6(9.1%)
	미래	48(100%)	22(45.8%)	11(22.9%)	15(31.3%)
	비상	44(100%)	24(54.5%)	12(27.3%)	8(1)(18.2%)
	세광	49(100%)	35(71.4%)	7(14.3%)	7(14.3%)
	음악	41(100%)	28(68.2%)	9(22.0%)	4(9.8%)
	지학	41(100%)	29(70.7%)	7(17.1%)	5(12.2%)
	천재	40(100%)	25(62.5%)	7(17.5%)	8(20.0%)
	소계	373(100%)	245(65.7%)	68(18.2%)	60(16.1%)
5학년	교학	55(100%)	32(58.2%)	16(29.1%)	7(12.7%)
	동아	44(100%)	27(61.4%)	10(22.7%)	7(15.9%)
	미래	54(100%)	35(64.8%)	13(24.1%)	6(11.1%)
	비상	51(100%)	36(70.6%)	10(19.6%)	5(9.8%)
	지학	41(100%)	29(70.8%)	6(14.6%)	6(14.6%)
	천재	40(100%)	25(62.5%)	9(22.5%)	6(1)(15.0%)
		소계	285(100%)	184(64.6%)	64(22.5%)
6학년	교학	50(100%)	29(58.0%)	14(28.0%)	7(14.0%)
	동아	64(100%)	42(65.6%)	13(20.3%)	9(14.1%)
	미래	51(100%)	27(52.9%)	16(31.4%)	8(15.7%)
	비상	59(100%)	38(64.4%)	12(20.3%)	9(1)(15.3%)
	지학	42(100%)	25(59.5%)	9(21.4%)	8(19.1%)
	천재	47(100%)	33(70.2%)	7(14.9%)	7(14.9%)
	소계	313(100%)	194(70.0%)	71(22.7%)	48(15.3%)
총계		1296	838	266	192
백분율(%)		100	64.7	20.5	14.8

(‘다문화 악곡 수()’는 외국곡이라고 기재된 제재곡의 수)

<그림 1>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출판사별 악곡 비율



<그림 2>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악곡 비율



나. 다문화 악곡의 분포

(1) 민족음악의 지역별 분포

각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은 세계 민요 및 세계 동요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출신지가 불분명한 외국곡 역시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민족음악에 포함하였다. 이는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이 지역·국가별 반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지역은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으로 하고 각 지역의 국가로 세분화하여 백분율로 비교하였다.

김은경(2014)의 선행 연구에서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의 대륙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6>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의 지역별 분포

지역 \ 학년	3		4			5			6			계	비율(%)
	A	B	C	D	E	F	G	H					
아메리카			4	5	2	1	1	1		1	15	23.4	
아시아	4					1					5	7.8	
아프리카						4	4	5	3	2	18	28.1	
오세아니아						1					1	1.6	
유럽	3	4				4	1	2	1	1	16	25	
미확인	3	2		2			1			1	9	14.1	
계	10	6	4	7	2	11	7	8	4	5	64	100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 분포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교육 내용 체계에서 명시한대로 3학년은 아시아 지역, 4학년은 유럽 지역, 5학년은 아메리카 지역, 6학년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제재곡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출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중심 지역의 제재곡을 수록하였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교육과정 내용 체계

에 오세아니아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교과서에도 오세아니아의 곡은 6학년의 D출판사에서 제시된 1곡에 그치고 있다. 둘째, 김은경(2014)의 연구에 의한 <표 7>에 따르면 국가별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아시아 민요는 중국, 일본, 이스라엘, 몽골의 국가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의 음악이 수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 환경을 고려하여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다문화 음악 및 문화적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유럽의 경우 동유럽 지역의 헝가리 민요 1곡을 제외하고는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제재곡이 편중되어 악곡이 실렸다. 김은경(2014)은 아시아에서는 서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민요, 아메리카는 중앙아메리카의 민요, 유럽은 남유럽, 북유럽, 중앙 유럽 지역의 민요가 단 한국도 수록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표 7>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의 국가

지역	국가 (악곡수)	국가수	악곡수
아메리카	멕시코(3), 미국(6), 브라질(2) 캐나다(1), 코스타리카(1), 페루(1), 푸에르토리코(1)	7	15
아시아	중국(1), 일본(1), 이스라엘(1), 몽골(1)	4	4
아프리카	가나(4), 나이지리아(2), 남아프리카공화국(1), 세네갈(1), 스와힐리족(1), 앙골라(1), 알제리(1) 케냐(4), 콩고(1), 탄자니아(2)	10	18
오세아니아	마오리족(1)	1	1
유럽	네덜란드(1), 독일(5), 러시아(1), 영국(5), 오스트리아(1), 프랑스(2), 헝가리(1)	7	16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의 이러한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되었고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는 다문화 악곡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각 학년별, 출판사별 다문화 악곡 대륙별 수록을 표로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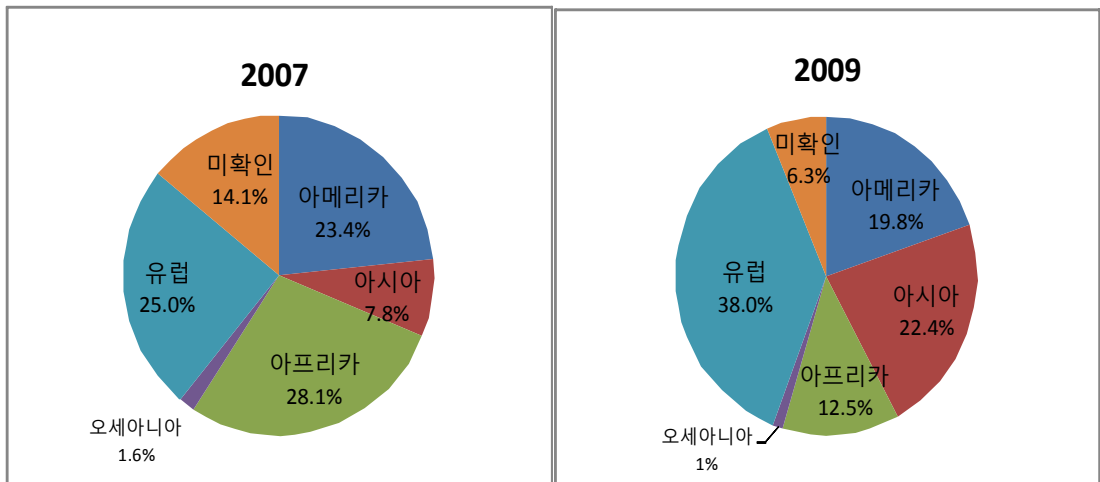
<표 8>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의 대륙별 분포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미확인	소계	총계
3 학 년	교학	1				4	1	6	47
	동아	1	2	2		4		9	
	미래	1				5	2	8	
	비상		3			2	1	6	
	세광		4			3		7	
	음악					4		4	
	지학		3				2	5	
천재						2	2		
4 학 년	교학	1	4			1	1	7	60
	동아	3				3		6	
	미래	5	3	2		5		15	
	비상					7	1	8	
	세광	1				6		7	
	음악	2				2		4	
	지학					5		5	
천재	2	3	1	1	1		8		
5 학 년	교학	5	1	1				7	37
	동아	1	1	1		4		7	
	미래		2			4		6	
	비상	3		1		1		5	
	지학	3	2			1		6	
	천재		2			3	1	6	
6 학 년	교학		2	4		1		7	48
	동아	2	3	1		3		9	
	미래	1	2	3		2		8	
	비상	2	2	3		1	1	9	
	지학	1	2	3	1	1		8	
	천재	3	2	2				7	
계		38	43	24	2	73	12	192	
비율(%)		19.8	22.4	12.5	1.0	38.0	6.3	100	

<표 9>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의 국가

지역	국가 (악곡수)	국가수	악곡수
아메리카	미국(19), 멕시코(4), 브라질(6), 아르헨티나(2) 캐나다(2), 푸에르토리코(5)	6	38
아시아	네팔(1), 대만(1), 몽골(2), 베트남(3), 이스라엘(2), 인도(1), 일본(12), 중국(13), 태국(2), 터키(1), 필리핀(5),	11	43
아프리카	가나(5), 나이지리아(2), 짐바브웨(1), 자메이카(2), 우간다(1), 케냐(5), 이집트(1), 탄자니아(1), 남아프리카공화국(2), 라이베리아(1), 미확인(3)	10	24
오세아니아	뉴질랜드(1), 파푸아뉴기니(1)	2	2
유럽	독일(27), 네덜란드(5), 프랑스(16), 아일랜드(1), 영국(8), 이탈리아(2), 스페인(2), 체코(2), 라트비아(1), 러시아(3), 스위스(2), 오스트리아(3), 헝가리(1)	14	73

<그림 3>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족음악의 대륙별 분포 비교



<표 8>에 따르면,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다문화 악곡의 지역별 분포는 유럽 38.0%, 아시아 22.4%, 아메리카 19.8%, 아프리카 12.5%, 오세아니아 1.0% 그리고 출신지가 불명확한 외국곡이 6.3%이다.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서는 아프리카 악곡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악곡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학년 D출판사에서 제시된 1곡이 유일하게 제시되었던 오세아니아 곡은 4학년 천재 1곡, 6학년 지학 1곡으로 단 1곡만이 증가하여 그 비중은 여전히 1%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외국곡의 비중은 14.1%에서 6.3%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다문화 악곡의 출신지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는 아메리카 7개국, 아시아 4개국, 아프리카 10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유럽 7개국의 악곡으로 총 29개국의 악곡이 제시되었다. <표 9>에 따르면,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는 아메리카 6개국,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10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유럽 14개국 총 43개국의 악곡으로 2007 개정과 비교하였을 때 아메리카를 제외하고 국가의 다양성이 넓어짐을 알 수 있다.

<표 7> 과 <표 9>를 비교하여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메리카에서 캐나다와 푸에르토리코의 곡을 수록함으로써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었으나 미국의 곡이 19/38로 아메리카 악곡의 5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종전의 4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다문화 가정의 부모 대부분의 국적이 아시아권임을 생각할 때,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은경(2014)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던 아시아권 음악의 비율이 낮은 것이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나라별로 비슷한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아프리카’라고만 명시되어 어느 나라의 음악인지 알 수 없는 곡이 1곡이 4학년 미래에 수록되었다. 유럽의 경우,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서 보여주었던 서유럽 중심의 악곡 수록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동부유럽, 남부유럽, 중앙유럽의 악곡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북유럽의 곡은 수록되고 있지 않으며, 유럽 전체 악곡의

37.0%가 독일의 음악이라는 것은 여전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과 독일 등의 특정 나라의 악곡의 비율이 두드러진 까닭은 그 문화권의 악곡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우리와 친근해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표 10>와 <표 11>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년별 출판사별 수록곡의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3학년의 경우 8개의 출판사 중에 동아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이 차지하는 비율이 23.1%에 이르며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악곡을 다루고 있다. 이제 대조적으로 음악은 유럽의 곡만 수록하였고, 천재는 국적을 밝히지 않은 외국곡만 2곡 수록하였다. 4학년 다문화 악곡은 8개 출판사 중에 미래에 25.9%가 수록되어 있으며,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지역의 악곡을 다루고 있다. 지학은 5곡 모두 유럽의 곡만 수록하고 있다. 5학년의 경우 모든 출판사에서 오세아니아 악곡을 다루고 있지 않다.

<표 12>의 출판사 별 수록 국가를 살펴보면, 교학은 아메리카 3개국, 아시아 5개국, 아프리카 3개국, 유럽 4개국의 음악을, 동아는 아메리카 5개국, 아시아 5개국, 아프리카 43개국, 유럽 8개국의 음악을, 미래는 아메리카 5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4개국, 유럽 7개국의 음악을, 비상은 아메리카 3개국, 아시아 3개국, 아프리카 3개국, 유럽 6개국의 음악을, 세광은 아메리카 1개국, 아시아 4개국, 유럽 6개국의 음악을, 음악은 아메리카 2개국과 유럽 4개국의 음악을, 지학은 아메리카 3개국, 아시아 3개국, 아프리카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유럽 5개국의 음악을, 천재는 아메리카 3개국, 아시아 5개국, 아프리카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유럽 3개국의 음악을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이 3~6학년까지 같은 출판사의 교과서로 음악 학습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가 23개국의 음악을 학습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음악은 아메리카와 유럽의 6곡만을 학습하는 것이다. 개별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의 종류에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문화 악곡과 다른 나라의 문화는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금주 · 조효임(2005)의 “미국 학교음악교육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 교과서 중 가장 대중적인 교과서인 ‘Share the Music’의 다문화 악곡의 수와 수록 국가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는 한국을 비롯한 12개국, 유럽은 11

개국, 아프리카는 10개국, 아메리카는 12개국, 오세아니아는 3개국으로 비교적 다양한 국적의 악곡을 수록하고 있으며, 세계의 다양한 지역 및 문화를 함께 소개하여 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악곡과 다른 나라의 악곡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육은 민족·인종의 문화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교과서의 예처럼 다문화적 악곡을 특정 대륙,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폭넓게 선정하는 일이 요구된다.

<표 10> 출판사 별 지역별 민족음악 수록 국가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미확인	국가수 (악곡수)
교 학	미국(4) 멕시코(1) 브라질(2)	베트남(1), 일본(2), 중국(2), 태국(1) 필리핀(1)	자메이카(1) 케냐(1), 이집트(1) 미확인(2)		네덜란드(1) 독일(3), 영국(1) 프랑스(1)	2	15 (27)
동 아	미국(3) 멕시코(1) 브라질(1) 아르헨티나(1) 푸에르토리코(1)	네팔(1), 일본(1) 중국(2), 터키(1) 필리핀(1)	가나(1) 남아프리카 공화국(1) 짐바브웨(1) 우간다(1)		네덜란드(1) 독일(5), 영국(2) 러시아(1) 스위스(1) 오스트리아(1) 체코(1) 프랑스(2)	0	22 (31)

<표 12> 계속

미래	멕시코(1) 미국(2) 브라질(2) 캐나다(1) 푸에르토리코(1)	몽골(1), 대만(1) 베트남(1) 일본(1), 중국(1) 태국(1) 필리핀(1)	나이지리아(1) 남아프리카 공화국(1) 자메이카(1) 케냐(1) 미확인(1)		독일(6), 영국(3) 러시아(1) 이탈리아(1) 오스트리아(1) 네덜란드(1) 프랑스(3)	2	23 (37)
비상	미국(3) 브라질(1) 푸에르토리코(1)	베트남(1) 일본(2) 중국(2)	가나(2), 케냐(1) 라이베리아(1)		독일(5) 라트비아(1) 스페인(1) 영국(1) 이탈리아(1) 프랑스(2)	3	15 (28)
세광	미국(1)	일본(1) 이스라엘(1) 중국(1) 필리핀(1)			독일(2) 스페인(1) 영국(1), 체코(1) 프랑스(3) 헝가리(1)	0	11 (14)
음악	미국(1) 캐나다(1)				네덜란드(1) 독일(2) 러시아(1) 프랑스(2)	0	6 (8)
지학	멕시코(1) 미국(2) 푸에르토리코(1)	몽골(1) 일본(3) 중국(3)	가나(1) 케냐(1) 탄자니아(1)	파푸아뉴기 니(1)	네덜란드(1) 독일(2), 아일랜드(1) 오스트리아(1) 프랑스(2)	2	15 (24)
천재	미국(3) 아르헨티나(1) 푸에르토리코(1)	일본(2), 인도(1) 이스라엘(1) 중국(2) 필리핀(1)	가나(1) 나이지리아(1) 케냐(1)	뉴질랜드(1)	독일(2) 스위스(1) 프랑스(1)	3	15 (23)

<표 11> 민족음악의 지역·국가별 분포 (3~4학년)

분류		3								4									
지역	나라	교학	동아	미래	비상	세광	음악	지학	천재	계	교학	동아	미래	비상	세광	음악	지학	천재	계
아메리카	멕시코									0			1						1
	미국	1	1		0					2	1	1	2		1	1		1	7
	브라질			1						1		1	1						2
	아르헨티나									0		1						1	2
	캐나다									0			1			1			2
	소계	1	1	1	0	0	0	0	0	3	1	3	5	0	1	2	0	2	14
아시아	몽골							1		1			1						1
	베트남				1					1	1								1
	일본				1	1		1		3	1							1	2
	이스라엘					1				1									0
	중국		1		1	1		1		4	1							1	2
	태국									0			1						1
	필리핀		1			1				2	1		1						3
	소계	0	2	0	3	4	0	3	0	12	4	0	3	0	0	0	0	3	10
아프리카	가나		1							1								1	1
	나이지리아									0			1						1
	짐바브웨		1							1									0
	미확인									0			1						1
	소계	0	2	0	0	0	0	0	0	2	0	0	2	0	0	0	0	1	3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0								1	1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유럽	네덜란드	1					1			2		1					1		2
	독일	1	2	3	1	1	2			10	1	2	2	2	1		1	1	10
	라트비아				1					1									0
	러시아									0					1				1
	스페인									0			1	1					2
	아일랜드									0							1		1
	영국	1								1			2	1	1				4
	이탈리아									0				1					1
	체코		1							1					1				1
	프랑스	1	1	2		2	1			7			1	2	1	1	2		7
헝가리									0					1				1	
	소계	4	4	5	2	3	4	0	0	22	1	3	5	7	6	2	5	1	30
총계	계	5	9	6	5	7	4	3	0	39	6	6	15	7	7	4	5	8	58
	백분율(%)	12.8	23.1	15.4	12.8	17.9	10.3	7.7	0	100.0	10.3	10.3	25.9	12.1	12.1	6.9	8.6	13.8	100.0

<표 12> 민족음악의 지역·국가별 분포 (5~6학년)

분류		5						6							
지역	나라	교학	동아	미래	비상	지학	천재	계	교학	동아	미래	비상	지학	천재	계
아메리카	멕시코	1	1			1		3							0
	미국	2			1	1		4		1		1	1	2	5
	브라질	2			1			3							0
	푸에르토리코				1	1		2		1	1			1	3
	소계	5	1	0	3	3	0	12	0	2	1	1	1	3	8
아시아	네팔		1					1							0
	일본					1		1	1	1	1	1	1	1	6
	중국					1		1	1	1	1	1	1	1	6
	대만			1				1							0
	베트남			1				1							0
	인도						1	1							0
	이스라엘						1	1							0
	태국	1						1							0
	터키							0		1					1
소계	1	1	2	0	2	2	8	2	3	2	2	2	2	13	
아프리카	남아공		1					1			1				1
	자메이카	1						1			1				1
	가나				1			1				1	1		2
	우간다							0		1					1
	짐바브웨							0							0
	케냐							0	1		1	1	1	1	5
	이집트							0	1						1
	미확인							0	2						2
	탄자니아							0					1		1
	라이베리아							0				1			1
	나이지리아							0						1	1
소계	1	1	0	1	0	0	3	4	1	3	3	3	2	16	

<표 11> 계속

오세아 니아	파푸아뉴기니							0					1		1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유럽	독일		1	1	1	1	1	5	1			1			2
	영국		1					1		1	1				2
	러시아		1	1				2							0
	스위스		1					1							0
	이탈리아			1				1							0
	네덜란드			1				1							0
	스위스						1	1							0
	프랑스						1	1		1					1
	오스트리아							0		1	1		1		3
	소계	0	4	4	1	1	3	13	1	3	2	1	1	0	8
총계	계	7	7	6	5	6	5	36	7	9	8	7	8	7	46
	백분율(%)	19.4	19.4	16.7	13.9	16.7	13.9	100.0	15.2	19.6	17.4	15.2	17.4	15.2	100.0

(2) 종교음악의 종교별 분포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 중에 종교적 특색을 띠는 악곡을 찾아 종교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강릉 단오제의 경우, 제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교식 의례와 무격에 의하여 거행되는 굿이 복합되어 나타나지만 ‘단오굿’이라고 부를 만큼 무당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굿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핵심이 되므로 무속종교에 포함시켰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8/22곡으로 36.4%를 차지하는 유교이고, 그 다음으로는 무속종교가 6/22곡으로 27.3%, 불교가 5/22곡으로 22.7%, 기독교가 3/22곡으로 13.6%를 차지하였고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한국도 제시되지 않았다. 유교는 종묘제례악의 형태로, 무속종교는 주로 지역 전승 음악인 ‘굿’과 강릉단오제가 수록되고 있으며, 기독교는 미사곡의 형태로, 불교는 영산회의 범패로 수록되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불교와 유교를 숭상하였고, 서민들에게는 무속신앙이 널리 퍼져있었던 역사적 흐름의 산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의 종교와도 관련지어 친숙한 문화에 대한 비중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종교음악이 교과서에 수록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미래엔 5~6학년의 118~119쪽 ‘의식과 음악’ 차시에서는 “종묘제례악” 중 ‘전폐 희문’,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 ‘리크리모사’, 교황 “마르첼리 미사” 중 ‘키리에’, 범패와 작법 “바깥채비 소리” 중 ‘훗소리’를 수록하고 있다.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종교음악의 분포와 비교했을 때, 3~4학년에서는 수록되지 않고 5~6학년에만 수록되었던 종교음악이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는 4학년까지 확대되었고, 종교음악의 수도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학사 3~4학년의 154~155쪽에는 지역전승음악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한 차시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동아출판사 5~6학년의 144쪽의 ‘강릉단오제’를 수록한 것 등은 음악 교과서에 서민들의 음악은 물론 지역 특색이 반영된 민속 음악을 소개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지역과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민족 문화의 지역별 분포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출판사 별로 종교음악의 반영 비율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5~6학년의 경우, 천재는 4곡의 종교음악을 5학년에 수록하였고, 그 외의 출판사는 6학년에 수록하였다. 학년군 교과서이기 때문에 어느 학년에 수록되었는가의 문제보다는 반영 비율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미래의 경우, 6곡의 종교음악을 통해 기독교, 불교, 유교, 무속종교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비상과 지학의 경우, 비상은 불교 1곡, 지학은 유교 1곡만을 수록함으로써 종교의 다양성을 접할 기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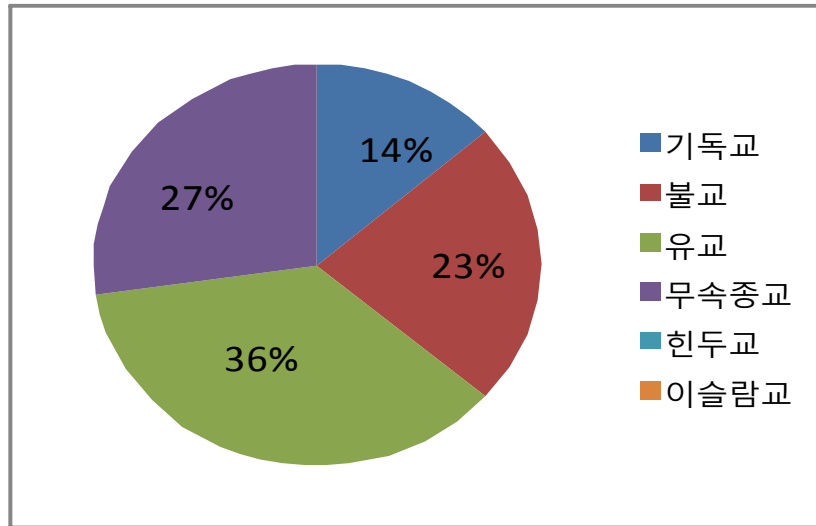
또한, 이슬람교와 힌두교 성격을 띤 종교음악이 한 곡도 수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다국적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템피아’의 2014년 세계종교인구 분포에 따르면 1위는 기독교, 2위가 이슬람교, 3위가 힌두교, 4위가 불교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의 하나로 ‘세계인’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음악 교과서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이 있는 종교음악만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출판사들은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교음악을 학생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교과서를 편찬해야 할 것이다.

<표 13> 종교음악의 종교별 분포(3~6학년)

구분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무속종교	계
학년	출판사							
3	교학							0
	동아							0
	미래							0
	비상							0
	세광							0
	음악							0
	지학							0
	천재							0
	소계	0	0	0	0	0	0	0
4	교학						1	1
	동아							0
	미래							0
	비상							0
	세광					1		1
	음악					1		1
	지학						1	1
	천재							0
	소계	0	0	0	0	2	2	4
5	교학							0
	동아							0
	미래							0
	비상							0
	지학							0
	천재	1	1			1	1	4
	소계	1	1	0	0	1	1	4
6	교학	1	1			1	1	4
	동아					1	1	2
	미래	1	2			2	1	6
	비상		1					1
	지학					1		1
	천재							0
	소계	2	4	0	0	5	3	14
총계	계	3	5	0	0	8	6	22
	백분율(%)	13.6	22.7	0	0	36.4	27.3	100.0

<그림 4> 종교음악의 종교별 분포(3~6학년)



(3) 대중음악의 장르별 분포

대중음악의 장르별 분포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영화음악이다. 영화음악은 32/57곡으로 56.1%, 뮤지컬과 팝송은 6/57곡으로 10.5%, 대중가요는 5/57곡으로 8.8%, TV음악이 4/57곡으로 7.0%, 캐롤이 2/57곡으로 3.5%, 랩과 생활음악이 1/57곡으로 1.8%를 차지하였다.

학생들에게 친근한 영화와 뮤지컬의 음악은 물론 TV광고나 게임음악을 제재곡으로 제시함으로써 음악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팝송 역시 학생들에게 친근한 멜로디인 ‘퍼프와 재키’ 음악으로 선정하여 소개하였으며 교과서에 랩과 대중가요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장르를 수록하였다.

구체적인 악곡의 예를 살펴보면 미래엔 3~4학년 94~95쪽의 ‘나는 애니메이션 음악 감독’이라는 차시에서 “라이언 킹” 중 ‘하쿠나 마타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 ‘인생의 회전목마’, “마당을 나온 암탉” 중 ‘바람의 멜로디’, “인어공주” 중 ‘Under the sea’를 수록하여 음악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장면과 음악의 어울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지학사

5~6학년 30~31쪽의 ‘애니메이션 음악 여행’ 차시에서 ‘날아라 슈퍼보드’, ‘뽀롱뽀롱 뽀로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수록하여 장면과 음악의 관계를 알고,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엔 3~4학년 54~55쪽의 ‘리듬 랩’ 차시에서는 리듬에 맞추어 랩을 하고 주제에 맞게 가사를 바꾸어 노래를 부르는 활동을 하며 입으로 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로 리듬 합주를 하는 것을 차시의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엔 5~6학년 24~25쪽에는 ‘나는 광고음악 감독’의 차시에서 광고에 어울리는 음악을 알아보고 광고에서 음악의 쓰임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TV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을 교과서 속의 제재로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엔 3~4학년 92~93쪽은 영국, 독일, 미국 국가를 소개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를 감상하는 활동을 하며 108~109쪽에는 우리나라를 빛낸 음악가로 대중가수 싸이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음악이 더욱 친근할 수 있고 음악의 장르가 서양의 예술음악과 우리나라의 동요와 민요로 한정짓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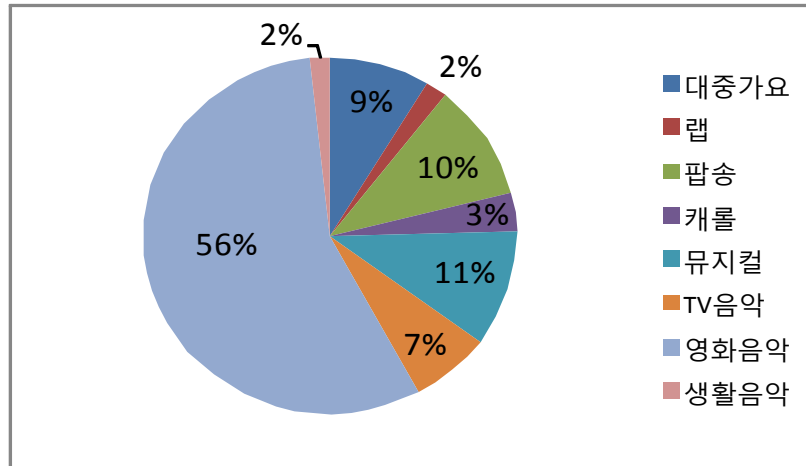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장르별 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3~4학년에는 수록되지 않던 대중음악이 범위가 3~6학년으로 확대되었고, 팝송, 캐롤, 뮤지컬, 영화음악에 한정적이던 장르가 대중가요, 랩, 팝송, 캐롤, 뮤지컬, TV음악, 영화음악, 생활음악으로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음악의 장르 중에서 영화음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장르의 반영 비율이 저조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화음악 위주로 수록된 것에서 나아가 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고르게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표 14> 대중음악의 장르별 분포(3~6학년)

구분		대중 가요	랩	팝송	재즈	캐롤	뮤지컬	TV 음악	영화 음악	생활 음악	계
학년	출판사										
3	교학								1		1
	동아								1		1
	미래		1	1							2
	비상										0
	세광					1					1
	음악										0
	지학										0
	천재										0
소계		0	1	1	0	1	0	0	2	0	5
4	교학			1							1
	동아			1							1
	미래								6		6
	비상			1					2		3
	세광										0
	음악			1					1		2
	지학			1					1		2
	천재								3		3
소계		0	0	5	0	0	0	0	13	0	18
5	교학	2									2
	동아						1	1	2	1	5
	미래								2		2
	비상	1									1
	지학								4		4
	천재										0
	소계	3	0	0	0	0	1	1	8	1	14
6	교학							1	3		4
	동아	1					1		1		3
	미래						1	1	3		5
	비상					1		1	1		3
	지학	1					2		1		4
	천재						1				1
	소계	2	0	0	0	1	5	3	9	0	20
총 계	계	5	1	6	0	2	6	4	32	1	57
	백분율	8.8	1.8	10.5	0	3.5	10.5	7.0	56.1	1.8	100

<그림 5> 대중음악의 장르별 분포(3~6학년)



다. 내용 체계에 따른 분석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악곡이 어떠한 내용 체계에 속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목표, 주요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따른 내용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때,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도 중복으로 모두 포함하여 계수하였다.

<표 15>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체계
1.표현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2.감상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3.생활화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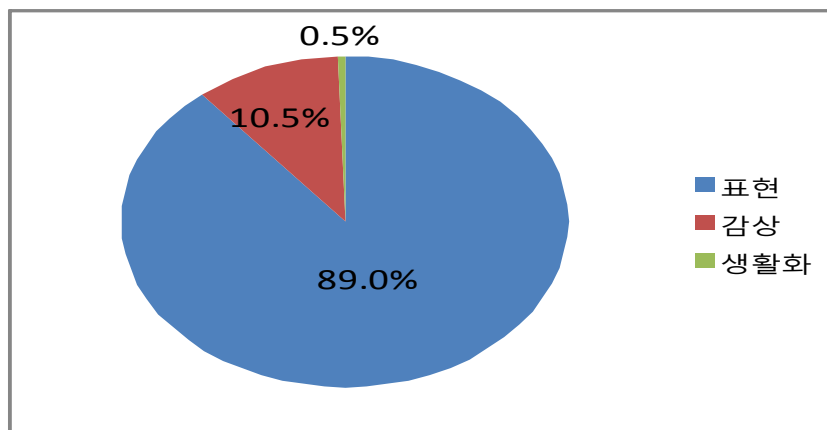
(1) 민족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분류

민족음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악곡의 학습 내용은 178/200으로 89.0%가 표현 영역에, 21/200으로 10.5%가 감상 영역의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생활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1/200으로 0.5%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가 13/200으로 6.5%,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가 156/200으로 78.0%,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가 9/200으로 4.5%, ‘2-2.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가 21/200으로 10.5%,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가 1/200으로 0.5%를 차지하고 있다.

89%를 차지하는 표현 영역의 활동은 주로 신체표현을 하며 노래를 부르거나, 빠르기를 다르게 하여 노래를 부르고, 리듬을 살려 악기를 연주하는 것,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상 영역은 세계 국가, 축제 음악, 경극과 가부키 등을 듣고 음악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하는 활동이 있다. 생활화에 해당하는 악곡은 비상 3~4학년 157쪽에 수록된 ‘소나무’ 로,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과 함께 녹음이나 녹화를 하여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유일하다.

학생들이 민족음악을 접함에 있어 표현활동 이외에 감상과 생활화의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민족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비율



<표 16> 민족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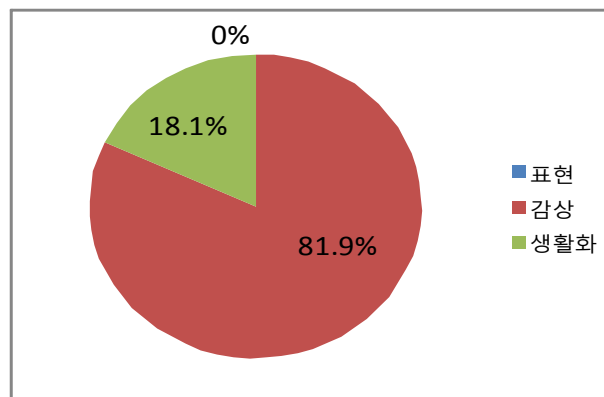
구분		표현			감상		생활화		계
학 년	출판사	바른 자세로 표현 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창의적으 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3	교학	1	5						6
	동아		9	1					10
	미래	3	5						8
	비상	2	3	1					6
	세광	1	6						7
	음악	1	3						4
	지학		5						5
	천재		2						2
	소계	8	38	2	0	0	0	0	48
4	교학		7						7
	동아		6						6
	미래		12			3			15
	비상	1	7				1		9
	세광		7	1					8
	음악		4	2					6
	지학		5						5
	천재		8						8
	소계	1	56	3	0	3	1	0	64
5	교학		5			2			7
	동아		7						7
	미래	1	5						6
	비상	1	4						5
	지학		3	1		2			6
	천재		6	1					7
	소계	2	30	2	0	4	0	0	38
6	교학		5	1		2			8
	동아		7			2			9
	미래	1	5			2			8
	비상		6	1		1			8
	지학	1	4			3			8
	천재		5			2			7
	소계	2	32	2	0	12	0	0	48
총 계	계	13	156	9	0	21	1	0	200
	백분율	6.5	78.0	4.5	0	10.5	0.5	0	100.0
		89.0			10.5		0.5		100.0

(2) 종교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분류

종교음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악곡의 학습 내용은 18/22로 81.9%가 감상 영역에, 4/22로 18.1%가 생활화 영역에 해당하고, 표현 영역은 단 한곡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감상 영역은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가 1/22로 4.5%,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가 3/22로 13.6%를 차지하고 있다. 81.9%를 차지하는 감상 영역의 주요 학습활동으로는 의식음악을 듣고 쓰임에 따른 음악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있고, 생활화 영역으로는 우리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음악과 관련한 민속 문화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이 있다.

종교음악이 주로 의식음악과 민속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그것을 감상하여 음악적 특징을 찾아내거나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표현활동에 해당하는 악곡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감상과 생활화에 치우친 종교음악의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음악이 다른 장르의 음악과 달리 조사하고, 듣는 것에 그치는 영역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여 관련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연주하기도 하는 것처럼, 종교음악의 한 구절을 표현하거나, 지역 전승 음악인 굿에 맞추어 신체 표현을 해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여 수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7> 종교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비율



<표 17> 종교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분류

구분		표현			감상		생활화		계
학 년	출판사	바른 자세로 표현 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창의적으 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4	교학							1	1
	동아								0
	미래								0
	비상								0
	세광					1			1
	음악					1			1
	지학					1			1
	천재								0
	소계		0	0	0	0	3	0	1
5	교학								0
	동아								0
	미래								0
	비상								0
	지학								0
	천재					4			4
	소계		0	0	0	0	4	0	0
6	교학					4			4
	동아					1	1		2
	미래					4		2	6
	비상					1			1
	지학					1			1
	천재								0
	소계		0	0	0	0	11	1	2
총 계	계	0	0	0	0	18	1	3	22
	백분율	0	0	0	0	81.9	4.5	13.6	100.0
		0			81.9		1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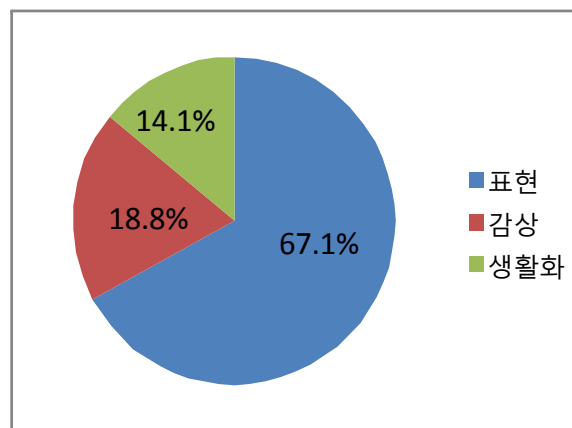
(3) 대중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분류

대중음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악곡의 학습 내용은 43/64로 67.1%가 표현 영역에, 12/64로 18.8%가 감상 영역에, 9/64로 14.1%가 생활화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가 7/64로 10.8%,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가 33/64로 51.6%,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가 3/64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가 1/64로 1.6%를,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가 11/64로 17.2%,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가 9/64로 14.1%를 차지하고 있다.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 중에서 대중음악이 가장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생활화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생활화 영역의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면 영역별 세부 내용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 체계에 따른 분류의 결과는 민족음악과 종교음악이 대중음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과 학습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림 8> 대중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비율



<표 18> 대중음악의 내용 체계에 따른 분류

구분		표현			감상		생활화		계
학 년	출판사	바른 자세로 표현 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창의적으 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3	교학	1							1
	동아		1						1
	미래		1	1					2
	비상								0
	세광		1						1
	음악								0
	지학								0
	천재								0
	소계	1	3	1	0	0	0	0	5
4	교학		1						1
	동아		1						1
	미래		1	1		4			6
	비상		3				1		4
	세광								0
	음악		2	1					3
	지학		2						2
	천재		3						3
	소계	0	13	2	0	4	1	0	20
5	교학					2			2
	동아		2				3		5
	미래		2						2
	비상					1			1
	지학		1			3	4		8
	천재								0
	소계	0	5	0	0	6	7	0	18
6	교학	1	3						4
	동아		2		1				3
	미래	3	2						5
	비상	2	1						3
	지학		3			1	1		5
	천재		1						1
	소계	6	12	0	1	1	1	0	21
총 계	계	7	33	3	1	11	9	0	64
	백분율	10.8	51.6	4.7	1.6	17.2	14.1	0	100.0
		67.1			18.8		14.1		100.0

IV. 결론 및 제언

1.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음악 교과서의 전체 악곡에서 다문화 악곡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나라 악곡과 서양 예술악곡의 비중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다문화 악곡을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김은경(2014)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 악곡의 학습 내용을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따라 표현, 감상, 생활화로 분류하고 다른 나라 음악이 반영된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악곡에 대한 다문화 악곡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14.8%를 차지하고 있다. 민요, 동요, 감상곡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악곡은 3학년 215곡으로 66.1%, 4학년 245곡으로 65.7%, 5학년 184곡으로 64.6%, 6학년 194곡으로 70.0%를 차지하고 있다. 학년과 출판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64%~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절반 이상의 곡이 우리나라 악곡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악곡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양 예술 악곡이다. 3학년은 63곡으로 19.4%, 4학년은 68곡으로 18.2%, 5학년은 64곡으로 22.5%, 6학년은 71곡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악곡은 3학년은 47곡으로 14.5%, 4학년은 60곡으로 16.1%, 5학년은 37곡으로 12.9%, 6학년은 48곡으로 15.3%를 차지하고 있다. 서양 예술 악곡과 다문화 악곡의 비중이 3학년과 4학년은 1%~5%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5학년과 6학년의 경우 8%~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4학년의 천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악곡과 서양 예술 악곡을 합친 비율이 80%이상이라는 것이다. 즉, 다문화 악곡의 비중은 4학년의 천재를 제외하면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민족음악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국가의 악곡이 수록되었고, 유럽과 아시아 악곡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출신지가 불분명한 외국곡의 비중이 14.1%에서 6.3%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다문화 악곡의 지역별 분포는 유럽 38.0%, 아시아 22.4%, 아메리카 19.8%, 아프리카 12.5%, 오세아니아 1.0% 그리고 출신지가 불명확한 외국곡이 6.3%이다.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의 6학년 D출판사에 제시된 1곡이 유일했던 오세아니아 곡은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서도 4학년 천재 1곡, 6학년 지학 1곡으로 단 1곡만이 증가하여 그 비중은 여전히 1%에 머무르고 있다.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는 아메리카 7개국, 아시아 4개국, 아프리카 10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유럽 7개국의 악곡으로 총 29개국의 악곡이 제시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는 아메리카 6개국,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10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유럽 14개국 총 43개국의 악곡으로 2007 개정과 비교하였을 때 아메리카를 제외하고 국가의 다양성이 넓어짐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나라별로 비슷한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아프리카'라고만 명시되어 어느 나라의 음악인지 알 수 없는 곡이 1곡이 4학년 미래에 수록되었고, 6학년 교학사에도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럽의 경우,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서 보여주었던 서유럽 중심의 악곡 수록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동부유럽, 남부유럽, 중앙유럽의 악곡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북유럽의 곡은 수록되고 있지 않으며, 유럽 전체 악곡의 37.0%가 독일의 음악이라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종교음악은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종교음악의 분포와 비교했을 때, 3~4학년에서는 수록되지 않고 5~6학년에만 수록되었던 종교음악이 2009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는 4학년까지 확대되었고, 종교음악의 수도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유교가 8/22곡으로 36.4%, 무속종교가 6/22곡으로 27.3%, 불교가 5/22곡으로 22.7%, 기독교가 3/22곡으로 13.6%를 차지하였고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한곡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불교와 유교를 숭상하였고, 서민들에게는 무속신앙이 널리 퍼져있었던 역사적 흐름의 산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의 종교와도 관련지어 친숙한 문화에 대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보다 넓은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교음악의 수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중음악은 2007 개정 초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장르별 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3~4학년에는 수록되지 않던 대중음악이 범위가 3~6학년으로

확대되었고, 팝송, 캐롤, 뮤지컬, 영화음악에 한정적이던 장르가 대중가요, 랩, 팝송, 캐롤, 뮤지컬, TV음악, 영화음악, 생활음악으로 다양해졌다. 영화음악은 32/57곡으로 56.1%, 뮤지컬과 팝송은 6/57곡으로 10.5%, 대중가요는 5/57곡으로 8.8%, TV음악이 4/57곡으로 7.0%, 캐롤이 2/57곡으로 3.5%, 랩과 생활음악이 1/57곡으로 1.8%를 차지하였다. 학생들에게 친근한 영화와 뮤지컬의 음악은 물론 TV광고나 게임음악을 제재곡으로 제시함으로써 음악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팝송 역시 학생들에게 친근한 멜로디인 ‘퍼프와 재키’ 음악으로 선정하여 소개하였으며 교과서에 랩과 대중가요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장르를 수록하였다. 하지만 영화음악과 뮤지컬 위주로 수록된 것에서 나아가 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고르게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따라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민족음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악곡의 학습 내용은 178/200으로 89.0%가 표현 영역에, 21/200으로 10.5%가 감상 영역의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생활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1/200으로 0.5%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음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악곡의 학습 내용은 18/22으로 81.9%가 감상영역에, 4/22로 18.1%가 생활화 영역에 해당하고, 표현 영역은 단 한곡도 없다. 대중음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악곡의 학습 내용은 43/64로 67.1%가 표현 영역에, 12/64로 18.8%가 감상 영역에, 9/64로 14.1%가 생활화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 중에서 대중음악이 가장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생활화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생활화 영역의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면 영역별 세부 내용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 체계에 따른 분류의 결과는 민족음악과 종교음악이 대중음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과 학습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2. 제언

2009 개정 교과서로 오면서 보다 많은 다문화 악곡들이 교과서에 수록되고 비중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의 해결과 보다 나은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예술음악이 음악교과 내용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다문화적 악곡들을 보다 폭넓게 선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느 특정 대륙 및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넓은 안목으로 음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 나라의 민요를 배울 때에는 음계, 리듬, 해당 문화권의 이해를 위한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서에 수록된 대다수의 곡들은 ‘박수를 치며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을 하며 노래 부르기’, ‘빠르기를 다르게 하며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전통악기를 소개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 음계와 리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셋째, 종교음악에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음악도 포함하여 수록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의 하나인 ‘세계인’의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종교에서 나아가 세계의 종교를 경험하게 해주어야 하며, 그 시작은 세계 종교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음악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다.

넷째, 각 출판사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권과 여러 장르의 음악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교과서에 수록하는 악곡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미래엔, 비상교육, 음악과생활 출판사에서는 ‘프랑스’ 국적이라고 밝힌 ‘동네 한 바퀴’ 노래가 천재교육 3~4학년 교과서에는 ‘외국곡’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이는 악곡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교사와 학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 악곡의 비중과 분포에 있어서도 다양한 악곡을 통해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을 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출판사는 사명감을 갖고 교과서를 편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 악곡들을 지도할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권의 악곡이 서양음악 위주의 음악요소 및 음악기능 학습의 보조 자료로 활용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세계의 민요, 세계의 문화가 수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제재로 다문화 악곡 특성에 맞는 목표와 학습내용, 평가계획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다원주의 관점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보다 나은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을 위한 발판이 된다. 지속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향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넓은 안목과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진엽(2012), 「다원주의 미학」, 책세상.

양영자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도서출판 한울.

월간미술저(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정대현(2013), 「이것을 저렇게도: 다원주의적 실재론」, 세창출판사.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저(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2. 교육과정 및 해설서

교육부(2013), 교육부 고시 제 2013-7호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교육부(2013),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부.

3. 교과서 및 지도서

노승중 외(2014), 「초등학교 음악 5~6」, 교학사.

노승중 외(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5~6」, 교학사.

박은덕 외(2014), 「초등학교 음악 5~6」, 비상교육.

박은덕 외(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5~6」, 비상교육.

석문주 외(2014), 「초등학교 음악 3~4」, 동아출판(주).

석문주 외(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4」, 동아출판(주).

석문주 외(2014), 「초등학교 음악 5~6」, 동아출판(주).

석문주 외(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5~6」, 동아출판(주).

오세균 외(2014), 「초등학교 음악 3~4」, (주)천재문화.

오세균 외(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4」, (주)천재문화.

윤명원 외(2014), 「초등학교 음악 5~6」, (주)천재문화.

윤명원 외(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5~6」, (주)천재문화.

장기범 외(2014), 「초등학교 음악 3~4」, (주)미래엔.

- 장기범 외(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4」, (주)미래엔.
- 장기범 외(2014), 「초등학교 음악 5~6」, (주)미래엔.
- 장기범 외(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5~6」, (주)미래엔.
- 정길선 외(2014), 「초등학교음악 5~6」, (주)지학사.
- 정길선 외(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5~6」, (주)지학사.
- 정길선 외(2014), 「초등학교 음악 3~4」, (주)지학사.
- 정길선 외(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4」, (주)지학사.
- 주대창 외(2013), 「초등학교 음악 3~4」, 비상교육.
- 주대창 외(2013),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4」, 비상교육.
- 황병훈 외(2014), 「초등학교 음악 3~4」, 교학사.
- 황병훈 외(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4」, 교학사.

4. 학술논문

- 권덕원(1999),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교육. 「음악과 문화」, 제2호, 세계음악학회, 49-75.
- 권덕원(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교육, 「음악과 문화」, 제2호, 세계음악학회, p.61.
- 김성혜(2011),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음악인류학적 단상, 「음악이론연구」, 제16집, pp12-15.
- 김현덕(2007), 다문화 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비교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3). 한국비교교육학회. 1-23.
- 문성원(1998), 현대성과 보편성, 한국철학회.
- 박미경(2002), 세계음악연구와 교육의 기반조성연구, 「음악과 문화」, 제 6집, 세계음악학회, 9-34.
- 방금주·조효임(2005), 미국 학교음악교육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
- 주대창·조효임(2004),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접근(1)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음악세계」,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제33집, 263-280.
- 함희주(2003), 초등학교교육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 「음악교육연구」, 제25집, 한국음악교육학회, pp. 108-109.

5. 학위논문

- 권도경(2011), 문화다원주의 시대의 문화이해교육을 위한 미술 감상지도 방법 연구: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경(2014),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악곡 분석: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한샘(2013), 다문화 교육관점에서의 아프리카 음악의 고찰 및 지도방안: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악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오선영(2008),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에 관한 분석 연구: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제재곡에 따른 다문화 학습의 유형에 대해,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효정(2005),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서양 음악사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혜리(2010). 제7차와 2007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반영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영란(2011), 다문화주의 음악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지선(2003),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주의 반영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지혜(2011),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악곡 연구: 제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희정(2010),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 세계 민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한현희(2004), 학교음악교육에서의 다문화주의 수용,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6. 전자자료

위키피디아, 「세계 종교 인구」, <<http://ko.wikipedia.org/wiki>>

A B S T R A C T *

A Analysis of Multicultural Music Pieces in view of Pluralism

-Based on the Elementary School Grade 3~6-

Park, Na Eun

**Major in Elementary Practical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 Young Bae

Today, we are living in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era. A global network has generated through by develop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and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culture is actively being made. Korea is also changing as a multi-ethnic society due several reasons: increasing foreign workers, immigrant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In order to live together with other cultural people, the attitude of recognized diversity is required. In one of the ways for this,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has been expanding. In this trend, we need to check that the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 is appropriate for understanding multicultural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study about problems and supplement points of the textbook in aspect of understanding

multiculturalism.

First of all, the cultural portions of the musical pieces in the textbook edited in 2009 were investigated. Second, the multi-cultural musical pieces were categorized as folk music, religious music and popular music and each portion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tegory.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previous research introduced by Kim [ref. no.]. Finally, the contents to learn were categorized as expression, appreciate, and life based on curriculum edited in 2009 and I investigated a way for applying the learning activiti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cultural portions of Korea and Western were 64.7% and 20.5%, respectively. Otherwise, the others portion was about 14.8%. According to publisher and grade, the portion may differ, however, the others portion did not exceed 20% in any textbook.

Second, in case of folk music, the portion of European and Asian musical pieces was increased in 2009 compared to 2007 edition. And the portion of unknown musical pieces was decreased from 14.1% to 6.3%. However, the musical pieces of the Northern European were still not included and 37.0% of European music is from a German. Thus, the diversity is still lacking.

In 2009 edition, religious musical pieces included only in 5~6 grade in 2007 edition were also included in 3~4 grade. The portions of Shamanism, Confucianism, Christianity, and Buddhism are 27.3%, 36.4%, 13.6% and 22.7%, respectively. Meanwhile, musical pieces about Islam and Hinduism were not included. In aspect of popular music, the various types of music were included such as pop, rap, carols, musical song, TV/movie music, live music, etc. Each portion of movie music, musical song, pops, TV music, movie music, pop, rap and carols is 56.1%, 10.5%, 8.8%, 7.0%, 3.5%, 1.8%, respectively.

Third, 89.0% of the musical pieces of the others cultural composed to folk music was in expression region. Only, the remainders about 10.5% were in appreciate region. And 0.5% were in life region.

From the result, the textbooks are insufficient to understand the

multicultural music. Selecting a range of music is not concentrated in a specific a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fic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which can lead to multi-cultural music.

IV. 부록

1. 교학사

가. 민족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국적	영역
1	3	44	비행기	미국	표현(1-1)
2		54	모두 즐겁게	독일	표현(1-2)
3		55	사라스폰다	네덜란드	표현(1-2)
4		56	거미	영국	표현(1-2)
5		57	아비뇽 다리 위에서	프랑스	표현(1-2)
6		68	소풍	외국곡	표현(1-2)
7	4	100	주전자	미국	표현(1-2)
8		110	딱따구리	외국곡	표현(1-2)
9		138	췌췌췌	일본	표현(1-2)
10		139	새해 노래	중국	표현(1-2)
11		140	꽃은 지고	필리핀	표현(1-2)
12		141	어린이들의 축제	베트남	표현(1-2)
13		172	이 몸이 새라면	독일	표현(1-2)
14	5	45	비행기	미국	표현(1-2)
15		56	난 철도에서 일하네	미국	표현(1-2)
16		57	차파네카스	멕시코	표현(1-2)
17		58	데이 오	자메이카	표현(1-2)
18		59	삼바렐레	브라질	표현(1-2)
19		61	루이끄라통 축제음악	태국	감상(2-2)
20		61	삼바 축제 음악	브라질	감상(2-2)
21	6	144	쇼솔로자	남아프리카	표현(1-2)
22		145	팡가 아라피아	서아프리카	표현(1-2)
23		146	닝 웬데테	케냐	표현(1-2)
24		147	아 야 제인	이집트	표현(1-2)
25		153	가부키	일본	감상(2-2)
26		153	경극	중국	감상(2-2)
27		180	음악은 영원히	독일	표현(1-2) 표현(1-3)

나. 종교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종교	영역
1	4	106	음악과 관련된 민속 문화 (평산 소놀이굿,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등)	무속신앙	생활화(3-2)
2	6	174	종묘제례악	유교	감상(2-2)
3		175	영산재	불교	감상(2-2)
4		175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무속신앙	감상(2-2)
5		175	미사	기독교	감상(2-2)

다. 대중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장르	영역
1	3	64	도레미 송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영화음악	표현(1-1)
2	4	143	퍼프와 재키	팝송	표현(1-2)
3	5	61	손에 손잡고	대중가요	감상(2-2)
4		61	오 필승 코리아	대중가요	감상(2-2)
5	6	110	도레미 송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영화음악	표현(1-2)
6		132	오늘 밤 사자는 잠을 잔다네 (영화 “라이언 킹” 중)	영화음악	표현(1-2)
7		159	오나라 (드라마 “대장금” 중)	TV음악	표현(1-1)
8		178	중소리 (영화 “메리 포핀스” 중)	영화음악	표현(1-2)

2. 동아출판사

가. 민족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국적	영역
1	3	16	들로 산으로	독일	표현(1-2)
2		22	안녕	프랑스	표현(1-2)
3		23	‘리’자로 끝나는 말은	미국	표현(1-2) 표현(1-3)
4		29	리코더를 불어보자	독일	표현(1-2)
5		32	딱따구리	체코슬로바키아	표현(1-2)
6		68	산사크로마	가나	표현(1-2)
7		68	살리보나니	짐바브웨	표현(1-2)
8		69	수건 돌려라	중국	표현(1-2)
9		69	꽃피는 봄날	필리핀	표현(1-2)
10	4	106	손을 잡고	미국	표현(1-2)
11		138	이품이 새라면	독일	표현(1-2)
12		170	삼바렐레	브라질	표현(1-2)
13		170	사라스폰다	네덜란드	표현(1-2)
14		171	오리	독일	표현(1-2)
15		171	나의 농장	아르헨티나	표현(1-2)
16	5	27	봄바람	독일	표현(1-2)
17		30	소리 모아 마음 모아	영국	표현(1-2)
18		64	별빛 눈망울	러시아	표현(1-2)
19		86	레쌌피리리	네팔	표현(1-2)
20		86	출레둘리	스위스	표현(1-2)
21		87	코네쉬팔레웬	멕시코	표현(1-2)
22		87	망구아니	남아프리카공화국	표현(1-2)
23	6	106	경극	중국	감상(2-2)
24		106	가부키	일본	감상(2-2)
25		114	체키모레나	푸에르토리코	표현(1-2)
26		114	피노키오	프랑스	표현(1-2)
27		115	위스크 다라	터키	표현(1-2)
28		115	사랑하는 친구야	우간다	표현(1-2)
29		118	뻐꾸기	오스트리아	표현(1-2)
30		129	할아버지의 시계	미국	표현(1-2)
31		140	다 함께 노래해	영국	표현(1-2)

나. 종교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종교	영역
1	6	144	강릉단오제	무속신앙	생활화(3-1)
2		171	종묘제례악	유교	감상(2-2)

다. 대중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장르	영역
1	3	84	로봇 태권브이	영화음악	표현(1-2)
2	4	111	퍼프와 재키	팝송	표현(1-2)
3	5	18	에델바이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영화음악	표현(1-2)
4		68	로봇태권브이	영화음악	생활화(3-1)
5		68	아쿠아리움 (게임 “메이플스토리” 중)	생활음악	생활화(3-1)
6		68	에너지 절약 광고	TV음악	생활화(3-1)
7		90	무지개 넘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중)	뮤지컬	표현(1-2)
8	6	105	The lion sleeps tonight (뮤지컬 “라이언 킹” 중)	뮤지컬	감상(2-1)
9		162	종소리 (영화 “메리 포핀스” 중)	영화음악	표현(1-2)
10		168	풍선	대중가요	표현(1-2)

3. 미래엔

가. 민족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국적	영역
1	3	7	안녕	프랑스	표현(1-1)
2		12	소풍	외국곡	표현(1-1)
3		15	나비아	독일	표현(1-1)
4		24	똑같아요	외국곡	표현(1-2)
5		28	발걸음도 즐겁게	독일	표현(1-2)
6		29	안녕 친구야	브라질	표현(1-2)
7		46	꿀벌	독일	표현(1-2)
8		58	동네 한 바퀴	프랑스	표현(1-2)
9	4	82	코끼리	태국	표현(1-2)
10		83	좋아 좋아	몽골	표현(1-2)
11		83	꽃은 지고	필리핀	표현(1-2)
12		86	아비뇽 다리 위에서	프랑스	표현(1-2)
13		87	런던 다리	영국	표현(1-2)
14		87	모두 즐겁게	독일	표현(1-2)
15		88	노를 저어라	미국	표현(1-2)
16		88	꽃	멕시코	표현(1-2)
17		89	종달새	캐나다	표현(1-2)
18		89	브라질 자장가	브라질	표현(1-2)
19		90	예썸 부 카와야	나이지리아	표현(1-2)
20		91	뚝 바 뚝뚝바	아프리카	표현(1-2)
21		92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영국	감상(2-2)
22		92	통일과 종의와 자유와 조국 통일을 위하여	독일	감상(2-2)
23		92	별이 빛나는 깃발	미국	감상(2-2)

24	5	36	티오오	대만	표현(1-2)
25		38	하이곤 땅랑 꼰	베트남	표현(1-2)
26		40	마 벨라 빔바	이탈리아	표현(1-2)
27		41	툼바	네덜란드	표현(1-2)
28		42	나의 기쁜 두나이	러시아	표현(1-2)
29		71	노래는 즐겁다	독일	표현(1-1)
30	6	87	아름다운 나의 벗	스코틀랜드	표현(1-1)
31		88	빠꾸기	오스트리아	표현(1-2)
32		106	체키 모레나	푸에르토리코	표현(1-2)
33		107	망고 워크	자메이카	표현(1-2)
34		108	정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표현(1-2)
35		109	잠보 브와나	케냐	표현(1-2)
36		156	가부키	일본	감상(2-2)
37		157	경극	중국	감상(2-2)

나. 종교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종교	영역
1	6	119	전폐회문 (“종묘제례악” 중)	유교	감상(2-2)
2		119	카리에 (“교황 마르첼리 미사” 중)	기독교	감상(2-2)
3		119	훗소리 (“범패와 작법 바깥채비 소리” 중)	불교	감상(2-2)
4		122	종묘 대체 및 종묘 제례악	유교	생활화(3-2)
5		123	영산재	불교	생활화(3-2)
6		123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무속신앙	감상(3-2)

다. 대중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장르	영역
1	3	47	퍼프와 재키	팝송	표현(1-2)
2		54	리듬 랩	랩	표현(1-3)
3	4	94	하쿠나 마타타 (영화 “라이언 킹” 중)	영화음악	감상(2-2)
4		94	인생의 회전목마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	영화음악	감상(2-2)
5		95	바람의 멜로디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 중)	영화음악	감상(2-2)
6		95	Under the sea (영화 “인어공주” 중)	영화음악	감상(2-2)
7		114	도레미 노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영화음악	표현(1-3)
8		115	에델바이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영화음악	표현(1-2)
9	5	74	중소리 (영화 “메리 포핀스 중)	영화음악	표현(1-2)
10		80	He's a Pirate! (영화 “캐리비언의 해적 중)	영화음악	표현(1-2)
11	6	120	날아라 슈퍼보드 (영화 “날아라 슈퍼보드” 중)	영화음악	표현(1-2)
12		121	우리는 모두 친구 (영화 “포켓몬스터” 중)	영화음악	표현(1-2)
13		133	오나라 (드라마 “대장금” 중)	TV음악	표현(1-1)
14		145	무지개 너머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	영화음악	표현(1-1)
15		152	희망찬 노래가 들리는가? (뮤지컬 “레 미제라블” 중)	뮤지컬	표현(1-1)

4. 비상교육

가. 민족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국적	영역
1	3	32	소년 한스	독일	표현(1-1)
2		34	행진곡	외국곡	표현(1-1)
3		54	우리 모두 다 함께	라트비아	표현(1-3)
4		69	눈	일본	표현(1-2)
5		70	숨바꼭질	중국	표현(1-2)
6		71	연등놀이	베트남	표현(1-2)
7	4	90	동네 한 바퀴	프랑스	표현(1-2)
8		146	안녕	프랑스	표현(1-2)
9		147	새가 결혼식을 한대요	독일	표현(1-2)
10		147	거미	영국	표현(1-2)
11		148	모두 모여 춤추자	이탈리아	표현(1-2)
12		149	나의 당나귀	스페인	표현(1-2)
13		157	소나무	독일	표현(1-2) 생활화(3-1)
14		161	흰 구름	외국곡	표현(1-1)
15	5	30	음악은 영원히	독일	표현(1-1)
16		60	난 산이 좋아	미국	표현(1-2)
17		61	마마 유 게로	브라질	표현(1-2)
18		62	체키모레나	푸에르토리코	표현(1-2)
19		68	세뉴아	가나	표현(1-2)
20	6	109	할아버지 시계	미국	표현(1-2)
21		118	봄바람	독일	표현(1-2)
22		134	아름다운 것들	외국곡	표현(1-3)
23		148	바누와	라이베리아	표현(1-2)
24		149	잠보	케냐	표현(1-2)
25		150	체체쿨레	가나	표현(1-2)
26		156	가부키	일본	감상(2-2)
27		156	경극	중국	감상(2-2)
28		167	비행기	미국	표현(1-2)

나. 종교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종교	영역
1	6	136	종묘제례악	불교	감상((2-2)

다. 대중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장르	영역
1	4	101	도레미 노래	영화음악	표현(1-2)
2		112	퍼프와 재키	팝	표현(1-2)
3		158~ 159	에델바이스	영화음악	표현(1-2) 생활화(3-1)
4	5	59	오 필승 코리아	대중음악	감상(2-2)
5	6	133	오나라 (드라마 “대장금” 중)	TV음악	표현(1-1)
6		168	종소리 (영화 “메리 포핀스 중)	영화음악	표현(1-2)
7		195	징글 벨	캐롤	표현(1-1)

5. 세 광음악출판사

가. 민족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국적	영역
1	3	18	춤곡	프랑스	표현(1-1)
2		72	술래잡기	일본	표현(1-2)
3		73	수건돌려라	중국	표현(1-2)
4		74	팽이	이스라엘	표현(1-2)
5		75	꽃 피는 봄날	필리핀	표현(1-2)
6		76	작은 별	프랑스	표현(1-2)
7		78	이 몸이 새라면	독일	표현(1-2)
8	4	88	릿자로 끝나는 말은	미국	표현(1-2) 표현(1-3)
9		92	옹달샘	독일	표현(1-2)
10		106	딱따구리	체코슬로바키아	표현(1-2)
11		150	우리 행복하다면	스페인	표현(1-2)
12		151	내 친구 블루벨즈	영국	표현(1-2)
13		152	딩동! 벨소리를 듣자	프랑스	표현(1-2)
14		153	얼룩 고양이	헝가리	표현(1-2)

나. 종교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종교	영역
1	4	99	대취타	유교	감상(2-2)

다. 대중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장르	영역
1	3	18	징글 벨	캐롤	표현(1-2)

6. 음악과 생활

가. 민족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국적	영역
1	3	12-13	안녕	프랑스	표현(1-2)
2		30	봄바람	독일	표현(1-1)
3		56	오리	독일	표현(1-2)
4		68	사라스폰다	네덜란드	표현(1-2)
5	4	94	동네 한 바퀴	프랑스	표현(1-2)
6		114	개구리 노래	캐나다	표현(1-2) 표현(1-3)
7		136	할아버지 농장에	미국	표현(1-2) 표현(1-3)
8		156	작은 나무에 핀 꽃	러시아	표현(1-2)

나. 종교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종교	영역
1	4	162	종묘 제례악	유교	감상(2-2)

다. 대중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장르	영역
1	4	154	퍼프와 재키	팝	표현(1-2)
		158	도레미 노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영화음악	표현(1-2) 표현(1-3)

7. 지 학 사

가. 민족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국적	영역
1	3	24	소풍	외국곡	표현(1-2)
2		32	시계	외국곡	표현(1-2)
3		61	수건 돌려라	중국	표현(1-2)
4		62	벚꽃	일본	표현(1-2)
5		63	아가야 이리와	몽골	표현(1-2)
6	4	86	봄바람	독일	표현(1-2)
7		98	동네 한 바퀴	프랑스	표현(1-2)
8		135	아비뇰의 다리 위에서	프랑스	표현(1-2)
9		136	사라스폰다	네덜란드	표현(1-2)
10		137	글웨이의 피리장이	아일랜드	표현(1-2)
11	5	79	난 산이 좋아	미국	표현(1-3)
12		80	달레 달레 달레	멕시코	표현(1-2)
13		81	체키모레나	푸에르토리코	표현(1-2)
14		86	경극	중국	감상(2-2)
15		87	가부키	일본	감상(2-2)
16		98	소나무	독일	표현(1-2)
17	6	140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미국	표현(1-1)
18		150	뼈꾸기	오스트리아	표현(1-2)
19		183	체체쿨레	가나	표현(1-2)
20		184	쿠리 렌 가이	탄자니아	표현(1-2)
21		185	잠보	케냐	표현(1-2)
22		191	중국의 춘절축제음악	중국	감상(2-2)
23		191	일본의 아와오도리축제	일본	감상(2-2)
24		191	파푸아뉴기니 싱싱축제	파푸아뉴기니	감상(2-2)

나. 종교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종교	영역
1	4	154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무속종교	감상(2-2)
2	6	186	종묘제례악	유교	감상(2-2)

다. 대중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장르	영역
1	4	118	퍼프와 재키	팝	표현(1-2)
2		140	도레미 노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영화음악	표현(1-2)
3	5	30	날아라 슈퍼보드 (영화 “날아라 슈퍼보드” 중)	영화음악	표현(1-2) 생활화(3-1)
4		31	뽀롱뽀롱 (영화 “뽀로로” 중)	영화음악	감상(2-2) 생활화(3-1)
5		31	인생의 회전목마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	영화음악	감상(2-2) 생활화(3-1)
6		31	사자가 잠든 고요한 정글 (영화 “라이온 킹” 중)	영화음악	감상(2-2) 생활화(3-1)
7	6	188	손에 손잡고	대중음악	표현(1-2) 생활화(3-1)
8		192	구름 위의 성 (뮤지컬 “레 미제라블” 중)	뮤지컬	표현(1-2)
9		195	젤리클 고양이들의 젤리클 노래 (뮤지컬 “캣츠” 중)	뮤지컬	감상(2-2)
10		200	중소리 (영화 “메리 포핀스 중)	영화음악	표현(1-2)

8. 천재교육

가. 민족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국적	영역
1	3	76	시계	외국곡	표현(1-2)
2		78	동네 한 바퀴	외국곡	표현(1-2)
3	4	130	엄마가 부른다	미국	표현(1-2)
4		131	체체쿨레	가나	표현(1-2)
5		132	꽃은 지고	필리핀	표현(1-2)
6		133	마오리 막대 놀이	뉴질랜드	표현(1-2)
7		134	토끼	일본	표현(1-2)
8		135	나의 농장	아르헨티나	표현(1-2)
9		136	모리화	중국	표현(1-2)
10		137	모두 즐겁게	독일	표현(1-2)
11	5	36	흰구름	외국곡	표현(1-2)
12		66	달아 달아	인도	표현(1-2)
13		67	살롬	이스라엘	표현(1-2)
14		68	아름다운 엠멘탈	스위스	표현(1-2)
15		69	피노키오	프랑스	표현(1-2)
16		72	음악은 영원히	독일	표현(1-2) 표현(1-3)
17	6	98	함께 나누어요	미국	표현(1-2)
18		128	경극	중국	감상(2-2)
19		128	가부키	일본	감상(2-2)
20		142	클레멘타인	미국	표현(1-2)
21		143	체키모레나	푸에르토리코	표현(1-2)
22		144	잠보	케냐	표현(1-2)
23		145	풍가 알라피아	나이지리아	표현(1-2)

나. 종교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종교	영역
1	5	70	종묘 제례악	유교	감상(2-2)
2		70	범패	불교	감상(2-2)
3		70	미사곡	기독교	감상(2-2)
4		71	강릉단오제	무속신앙	감상(2-2)

다. 대중음악

연번	학년	쪽(p)	악곡명	장르	영역
1	4	72	두치와 뿌꾸 (영화 “두치와 뿌꾸” 중)	영화음악	표현(1-2)
2		73	로봇태권 V (영화 “로봇태권 V” 중)	영화음악	표현(1-2)
3		74	달려라 하니 (영화 “달려라 하니” 중)	영화음악	표현(1-2)
4	6	128	사랑이 가득한 마음 너는 듣고 있는가? (뮤지컬 “레 미제라블” 중)	뮤지컬	표현(1-2)